

# 이라크 전후복구와 우리의 대중동 진출 확대 방안

주 동 주

2004. 9

I. 이라크 전쟁과 중동의 경제환경 변화 .....	1
II. 이라크 재건과 주요 현안 .....	5
1. 임시정부 출범과 주권이양 .....	5
2. 경제동향과 주요 현안 .....	9
III. 전후 중동 주요국 경제 동향과 전망 .....	18
1. 산유국경제, 20여년 만의 최대 호황 .....	18
2. 사우디아라비아 .....	19
3. 아랍에미리트연합 .....	21
4. 쿠웨이트 .....	23
5. 이란 .....	24
6. 이집트 .....	26
IV. 한국의 대중동 진출 현황 .....	29
1. 대중동 경제진출 현황과 특징 .....	29
2. 부문별 진출 현황 .....	31
V. 대중동 진출 확대전략 .....	38
1. 대중동 경제진출의 기본전략 .....	38
2. 분야별 진출전략 .....	42
참고문헌 .....	50

〈표 I-1〉 국제유가 추이 .....	2
〈표 I-2〉 이라크 전쟁 관련 일지 .....	4
〈표 II-1〉 이라크 임시정부 요인 .....	6
〈표 II-2〉 이라크 경제의 추이(1980년 불변가격 기준) .....	10
〈표 II-3〉 이라크정부의 재정계획(2004~2007) .....	11
〈표 II-4〉 이라크의 원유생산 추이 .....	12
〈표 II-5〉 이라크의 석유수출 경로 .....	13
〈표 II-6〉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약속 금액(2004~2007) .....	14
〈표 II-7〉 CSIS 추산 이라크 외채 규모 .....	17
〈표 III-1〉 주요 산유국 석유수출액 .....	19
〈표 III-2〉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	20
〈표 III-3〉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주요 경제지표 .....	22
〈표 III-4〉 쿠웨이트의 주요 경제지표 .....	24
〈표 III-5〉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	26
〈표 III-6〉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	27
〈표 IV-1〉 한국의 교역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 .....	30
〈표 IV-2〉 중동산 원유도입 현황 .....	31
〈표 IV-3〉 대중동 주요국별 수출추이 .....	33
〈표 IV-4〉 품목별 중동수출 현황 .....	34
〈표 IV-5〉 대중동 주요국별 건설수주 추이 .....	35
〈표 IV-6〉 우리나라의 대중동 국별 투자실적 .....	37
〈표 V-1〉 대중동 수출유망품목 .....	44

## I . 이라크 전쟁과 중동의 경제환경 변화

### □ UN 금수해제로 이라크 석유수출 재개

- 이라크는 1990년 8월 인접국인 쿠웨이트를 침공하여 점령한 뒤 UN의 경제제재를 받아 세계 모든 나라와의 교역 및 금융거래가 중단되었음(UN안보리 결의안 661호).
- 이에 따라 OPEC의 2대 산유국으로 1989년 하루 약 230만 배럴의 원유를 수출했던 이라크는 국제석유시장에서 퇴출되었음. 또한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상품수입시장이 국제경제에서 폐쇄되었음.
-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점령 이후 UN은 안보리결의안 1483호(2003. 5)에 의해 이라크에 대한 그 동안의 전면적 경제제재를 완전히 해제하였음. 이에 따라 이라크가 국제사회에 복귀함.

### □ 유가 폭등으로 산유국 경제 호전

- 이라크전쟁을 전후해 중동지역의 정세 불안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폭등하였음. 전후에는 이라크의 석유수출이 재개

되면서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라크 정정이 안정되지 않으면서 2004년 상반기까지 상승추세가 이어졌음.

- 2003년 평균 두바이유가는 전년대비 12.5% 상승하였음. 2004년 6월 말 현재는 배럴당 33.54달러로 2003년 평균유가에 대비해 25.2%나 상승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유가상승에 힘입어 중동의 산유국들은 사우디아라비아가 2003년 6.4% 성장하고 쿠웨이트 증시는 두 배 이상 상승하는 등 1980년대 초 이래 최고의 호황을 구가하게 되었음 (주요 산유국 경제동향은 제3장에서 상술).

#### □ 역내 불확실성 제거로 이라크 주변국들 경제 안정

-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되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이 제거됨으로써 쿠웨이트와 사우디, 바레인 등 인근의 산유국들은 안보 불안이 해소되어 경제개발에 주력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음.

〈표 1-1〉

국제유가 추이

단위 : 배럴당 달러

	2002 평균	2003 평균	2004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WTI	26.09	31.11	34.23	34.73	36.73	36.71	40.27	36.29
Brent	25.15	28.70	31.33	30.89	33.81	33.39	37.85	35.09
Dubai	23.81	26.79	28.86	28.63	30.78	31.53	34.66	33.54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http://www.keei.re.kr>).

- 쿠웨이트의 경우 이라크 국경 근처의 북부 유전(Northern Oil Fields) 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그 동안 불안한 역내 사정  
으로 미루어두었던 대형 개발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예정임.
- 전후 이라크의 항공, 물류 시설이 마비된 상태에서 쿠웨이트, 요르단 등 인접국들이 중간수송기지 역할을 하게 됨에  
따라 이라크 복구에 따른 특수효과도 누리고 있음.

#### □ 테러 불구 역내 관광수입 증가

- 전후 이라크 정세의 불안으로 인한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가 상승으로 산유국 경제가 호전됨으로써 사우디, 쿠  
웨이트, UAE 등 고소득 산유국 주민들을 중심으로 인근  
국가에 대한 관광붐이 불고 있음.
- 2003년 전세계 관광객수는 이라크 전쟁, 사스(SARS) 등의  
영향으로 1.2% 감소했으나 중동지역은 10.2% 증가하였음.  
특히 두바이(32%), 이집트(20%), 시리아(17%), 레바논(14%),  
요르단(10%) 등의 관광객수가 급증하였음(*The Daily Star*,  
2004. 6. 8).
- 이 가운데 역내 관광객이 42%를 차지했는데, 이는 산유국  
주민들의 소득 증가와 더불어 9. 11 테러 이후 미국, 유럽  
국가들의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면서 역내 관광에 대한  
대체수요가 늘었기 때문임.
- 2004년에도 지속적인 유가 상승으로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임.

〈표 1-2〉 이라크 전쟁 관련 일지

날 짜	주 요 사 건
<2003년>	
3. 20	미·영 연합군, 이라크 상대 개전
4. 9	바그다드 함락
4. 13	미국방부 산하의 ORHA <sup>1)</sup> 가 이라크 행정 접수
5. 1	부시 미대통령, 종전 선언
5. 12	연합군 임시행정처(CPA <sup>2)</sup> ) 출범, 최고 책임자 Paul Bremer
5. 22	UN 안보리 결의안 1483호 채택 - 미영연합군의 이라크 지배 승인 - 대이라크 금수 해제 - 이라크 중앙은행이 관리하고 국제감독기구(IAMB <sup>3)</sup> )가 자문하는 이라크 개발기금(DFI <sup>4)</sup> ) 설립
7. 13	25인으로 구성된 이라크 과도통치위원회(IGC <sup>5)</sup> ) 출범
8. 19	바그다드 UN 사무소 테러, 100여명 사상
10. 16	UN안보리 결의안 1511호 채택 - CPA의 임시적 성격과 이라크 국민의 주권 보유 선언 - IGC가 12월 15일까지 주권이양계획을 공개토록 촉구
11. 15	CPA-IGC, 주권이양계획 합의
12. 13	사담 후세인 전대통령, 고향 티크리트에서 체포
<2004년>	
3. 8	주권 이양에 관한 세부 일정을 규정한 과도행정법 입법
3. 31	팔루자에서 미국인 시신 훼손 사건 발생, 미군 팔루자 대대적 공격 개시
4. 27	시아파 지도자 사드르와 미군정 충돌로 나자프 등지에서 교전 확대
4. 28	아부그라이브 포로수용소에서 미군의 포로 학대 행위 공개됨
6. 1	IGC 해체,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 출범
6. 8	UN 안보리 결의안 1546호 채택(주권이양 절차 승인)
6. 22	한국인 김선일 피랍, 살해사건 발생
6. 28	임시정부에 주권 이양, CPA 해체

- 주 : 1) Office of Reconstruction and Humanitarian Assistance.  
2) 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3)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  
4) Development Fund for Iraq.  
5) Interim Governing Council.

---

## II. 이라크 재건과 주요 현안

### 1. 임시정부 출범과 주권이양

#### □ 임시정부 출범, 6월 28일 주권 이양

- 2003년 4월 미군의 바그다드 점령 이후 미영연합군 임시행정처(Coalition Provisional Authority : CPA)가 통치해 온 이라크에서 2004년 6월 1일 이라크인들로 구성된 임시정부(Interim Government)가 출범했음.
- 임시정부는 이라크내 각 종족과 종파를 대표하는 명망가들로 구성되었으며, 6월 28일자로 CPA로부터 주권을 이양받았음.
  - 임시정부의 대통령은 수니파로서 미국에서 공부한 망명사업가 출신의 야웨르(Ghazi Al-Yawar)가 선출되었음.
  - 정치적 실권을 장악하는 총리직에는 이라크내 최대 종파인 시아파의 리더로서 의사 출신인 알라위(Iyad Allawi)가 선출되었음.
  - 이 밖에 두 명의 부통령에는 시아파와 쿠르드족의 리더가



선출되었으며, 내각의 주요직도 각 종족과 종파간에 분배되었음.

□ 2006년 1월 새 정부 공식 출범 예정

- UN안보리는 2004년 6월 8일 이라크의 향후 정치일정과 절차 등에 관한 결의안 1546호를 채택했음.
- 동 결의안은 미국과 영국의 제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이며, 지난 3월 채택된 이라크의 과도행정법(Transitional Administrative Law)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주권이양절차를 그대로 승인한 것임.
- 동 결의안은 이라크의 향후 정치일정에 관해 과도의회와 과도 정부의 구성단계를 거쳐 2005년 말 새 헌법에 기초한 선거를 치르고 새 정부를 구성한다는 절차를 승인하였음(BOX-1 참조).

〈표 II-1〉 이라크 임시정부 요인

직책	이름	나이	종파	비고
대통령	Ghazi Al-Yawar	45	수니	미국 조지타운대 졸, 엔지니어 출신, 사우디에서 사업
총리	Iyad Allawi	59	시아	런던대 의학박사
부통령	Ibrahim Jaafari	56	시아	Dawa Party 리더. 1980년 이후 이란과 영국 망명 생활
부통령	Rowsch Shaways	57	쿠르드	PUK 자치정부 총리. 독일에서 공학박사

자료 : 각 언론매체 종합.

(BOX-1) UN 안보리 결의안 1546호 주요 내용

○ 향후 이라크 정치 일정

- 2004년 말 또는 늦어도 2005년 1월 초까지 임시정부의 주관하에 총선을 시행하여 과도의회(Transitional National Assembly)를 구성하고,
- 과도의회에서 과도정부(Transitional Government)를 구성한 다음,
- 과도정부가 새 헌법을 입안하고,
- 2005년 말까지 새 헌법에 기초한 선거를 통해 새 정부를 구성함.

○ 다국적군 주둔 문제

- 이라크 임시정부 총리의 요청에 따라 주요 정치일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치안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결정함.
- 추후 이라크정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아니면 12개월 후 다국적군의 지속적인 주둔 여부를 재검토함. 이라크정부가 요청할 경우에는 다국적군의 임무를 조기 종식함.

○ 전후복구 문제

- CPA의 해체와 더불어 이라크개발기금(DFI)의 집행에 관한 권한은 이라크정부로 이관됨. 이 기금에 관한 국제감독기구(IAMB)의 역할은 지속됨.
- 국제사회의 대이라크 지원을 조정할 일차적 책임도 이라크 임시정부가 맡음.
- 이라크 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지원과 외채탕감 등을 촉구하며 환영함.

- 또한 위의 정치일정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이라크내 치안 유지를 위해 다국적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필요함을 인정하였음.
- 미국측으로서는 과도통치위원회에서 활동해 온 친미 성향의 인물들 위주로 임시정부를 구성한 데 이어, 향후 정치일정과 다국적군 주둔에 관한 UN 결의를 원하는 방식으로 끌어냄으로써 주권 이양 과정의 일단계 고비를 일단 순조롭게 넘긴 것으로 평가됨.

#### □ 정정 불안 지속

- 임시정부 출범 이후 주권이 이양됐음에도 임시정부와 미군의 영향력에 반대하는 저항세력의 테러 행위가 지속되는 등 이라크 정정은 계속 불안한 상황에 있음.
- 8월 초 임시정부와 미군은 반미세력의 핵심인물인 시아파 지도자 무크타다 알 사드르의 거점도시 나자프에서 대대적인 공세를 펴 사드르가 지휘하는 마흐디 민병대원 300여명을 사살했음.
- 한편으로 임시정부는 8월 초 경범죄자에 대한 사면령을 시행하는 등 강온 양면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각종 저항단체와 범죄세력의 테러가 지속되고 있음.
- 2005년 1월 총선을 통한 과도의회와 과도정부 구성을 앞두

고 다양한 종파와 정치세력의 이해 조정을 통해 향후 새 정치구도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정국 안정의 선결요인임.

## 2. 경제동향과 주요 현안

### □ 전후 경제난 심화

- 이라크경제는 1980년대 이후 장기간에 걸쳐 반복된 전쟁과 UN의 경제제재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왔음. 2003년 미국과의 전쟁 이후로는 정부 붕괴로 인한 행정과 치안 부재, 인프라 파괴, 실업증가 등으로 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음.
- 이라크는 1980~88년간 이란과의 전쟁, 1990년 쿠웨이트 침공과 1991년 걸프전쟁, 이후 UN에 의한 장기간의 경제제재, 2003년 대미국 전쟁 등으로 경제성장의 기회가 원천봉쇄당하고 오히려 파괴를 거듭해왔음.
- 2003년 GDP는 전년 대비 20% 이상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걸프전 발발 이전인 1990년 GDP와 비교할 때 1/4 수준에 불과한 상태임(〈표 II-2〉 참조).
- 2003년 미군 점령 이후로는 전력, 통신, 주요 교통망 등 인프라 파괴와 행정조직 붕괴에 따른 치안 부재, 40만 이상에 달하는 군대와 경찰의 해산으로 인한 실업 증가 등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음.

〈표 II-2〉 이라크 경제의 추이(1980년 불변가격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1990	1991	1995	2000	2001	2002	2003
GDP (지수)	46,940 100	12,014 25.6	10,026 21.4	16,758 35.7	16,256 34.6	15,605 33.2	12,173 25.9
1인당 GDP (지수)	2,593 100	· ·	501 19.3	722 27.8	686 26.5	637 24.6	483 18.6

자료 : Middle East Economic Survey, June 21, 2004.

## □ 석유수출이 경제 회복의 관건

- 이라크경제는 석유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어 석유생산과 수출의 정상화가 경제회복의 일차 관건임.
- 석유는 현재 이라크의 유일한 수출상품으로 전후 복구 자금 조달에 가장 중요한 자원임. 이라크정부의 재정계획에서도 석유는 재정수입의 97%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 이라크의 원유생산은 2003년에 전쟁으로 전년비 36% 감소한 129만 배럴/일에 머물렀으나, 2004년 들어 빠르게 정상화되면서 3월에는 250만 배럴/일로 전전 수준을 회복했음.
- 그러나 이는 걸프전 발발 이전인 1990년의 하루 300만 배럴, 대이란전 발발 이전인 1979년의 350만 배럴에 비해 아직 많이 모자라는 수준임.

〈표 II-3〉 이라크정부의 재정계획(2004~2007)

단위 : 억 달러

	2004	2005	2006	2007	계
세 입	128	192	198	198	715
석유수출	120	185	193	193	691
관 세	3	4	0	0	7
소 득 세	0	1	2	2	4
국영기업수익	4	1	1	1	7
수수료	1	1	1	1	4
기 타	1	1	1	1	3
세 출	134	192	197	197	721
경상비	121	130	131	131	513
쿠웨이트전 배상금	6	9	10	10	35
외채이자	0	2	2	2	6
자본투자	7	51	54	54	167
재 정 수 지	-6	-	-	-	-5

자료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f USA, *Paying for Iraq's Reconstruction*, Jan. 2004.

주 : 일부 항목의 반올림 때문에 계가 표상에 나타난 것과 일치하지 않음.

- 4월 이후로는 중남부지역에서 시아파 저항세력의 테러 공격이 심해지면서 석유시설에 대한 테러와 주요 수출항인 바스라항의 기능 차질로 5월에는 205만 배럴 수준으로 줄어들었음.
- 2004년 들어 원유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석유수출액은 당초 정부예산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석유 생산 및 수출시설에 대한 테러 방지가 가장 시급한 과제임.

- 미국정부는 2003년 5월 종전 이후 1년 동안 석유수출시설에 대한 공격이 130여건에 달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특히 4,300마일에 이르는 송유관 테러가 가장 심각함.
- 이라크는 2002년 말 기준 확인매장량 1,125억 배럴로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의 석유 보유국이며, 기존의 수출시설이 모두 정상 가동될 경우 원유를 하루 600만 배럴까지 수출할 수 있음.
- 그러나 거듭된 전쟁과 경제제재로 지난 20여년간 석유시설에 대한 신규투자과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정상적인 생산과 수출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시일과 투자가 소요될 전망이다.
- 특히 기존의 4대 수출 경로 중 시리아 경유 Banias 송유관과 사우디 경유 홍해 송유관 등이 폐쇄 상태에 있고, 걸프만의 수출 항구들도 상태가 좋지 않아 수출 정상화에 애로가 있음.

〈표 II-4〉 이라크의 원유생산 추이

단위 : 천 배럴/일

2001	2002	2003	2004				
			1	2	3	4	5
2,312	2,014	1,288	2,000	1,880	2,500	2,306	2,050

자료 : Middle East Economic Survey (<http://www.mees.com>).

〈표 II-5〉 이라크의 석유수출 경로

수출방향	수송능력	주요 수출항	비고
걸프만	280만 배럴/일	Mina Al-Bakr Khor Al-Amaya	가동 NA
터키	160만 배럴/일	Ceyhan	가동
사우디아라비아	160만 배럴/일	홍해 Muajiz	2001. 6. 폐쇄
시리아	30만 배럴/일	지중해 Banias	2003. 6. 폐쇄

자료 : 박복영, 배희연(2003).

- 정유시설은 바스라(13만), 바이지(29만), 다우라(10만) 등 10개 정유소에서 하루 60만~70만 배럴의 정유능력을 갖추고 있음. 그러나 시설 노후와 전기공급 부족으로 정상적인 생산을 못하고 있음.

□ 국제사회의 원조 이행 차질

- 이라크의 전후복구자금은 크게 이라크의 석유수출대금, 미국이 지원하는 이라크 구호 및 재건기금(IRRF)<sup>1)</sup>, 미국 이외의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가 지원하는 이라크를 위한 국제재건자금(IRFFI)<sup>2)</sup> 등 세 가지 재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

1) IRRF는 이라크 구호 및 재건자금(Iraqi Relief and Reconstruction Fund)을 말함.

2) IRFFI는 이라크를 위한 국제재건자금(International Reconstruction Fund Facility for Iraq)을 말함. UN개발그룹(UN Development Group)과 세계은행이 이 자금을 두 개의 계정으로 나누어 관리함.



- 석유수출대금은 UN안보리 결의 1483호(2003. 5)에 따라 이라크 재건기금(DFI : Development Fund for Iraq)으로 편입되어, 국제감독기구(IAMB)<sup>3)</sup>의 감독 아래 이라크정부가 집행하고 있음.

〈표 11-6〉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 약속 금액(2004~2007)

단위 : 억 달러

	원조	차관	계	비 고
미 국	184	0	184	2003. 11. 미의회 승인. IRRF 자금으로 지정되어 국무부가 집행 <sup>3)</sup>
일 본	15	34	49	2003. 10. Madrid 회의에서 결정된 IRFFI 자금으로 편입. 이 자금은 UN 관할의 undg Fund와 World Bank 관할의 Trust Fund로 나뉘어 운용됨
World Bank	0	30~50	30~50 <sup>1)</sup>	
I M F	0	26~43	26~43 <sup>1)</sup>	
E U	7	8	15	
G C C	5	5	10	
기 타	(5~10)	(5~10)	10 <sup>2)</sup>	
계	211~221	103~150	324~361	

자료 :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Paying for Iraq's Reconstruction*, Jan. 2004.

주 : 1) 세계은행과 IMF의 차관 규모는 두 기구와 이라크정부의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원조와 차관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

3) 당초 186억 달러가 승인되었으나 이 가운데 2.1억은 요르단, 라이베리아, 수단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정되었음.

3) International Advisory and Monitoring Board. UN안보리 결의안 1546호는 CPA가 해체된 이후에도 IAMB의 역할은 지속된다는 것을 결정하였음.

- 미국과 국제사회가 지원을 약속한 금액은 2003~2007년간 총 324억~361억 달러임. 미국 자금은 미국무부, 기타 자금은 UN과 세계은행이 공동으로 관리하여 집행함(〈표 II-6〉 참조).
- 이라크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회의는 2003년 10월 마드리드, 2004년 2월 아부다비, 2004년 5월 도하에서 개최되었음. 동 회의에서 약속된 금액은 IRFFI 자금으로 편입되어 세계은행과 UN이 공동관리하기로 결정됨.
- 아부다비 회의에서는 IRFFI 자금의 운용을 관리할 집행기구로 1,000만 달러 이상을 약속한 12개국의 원조국위원회(Donors' Committee)를 구성했음. 동 위원회의 의장국은 일본이 맡음.
- 2004년 6월 말 현재 실제로 조성된 IRFFI 자금은 10억 달러로 당초 약속이나 이라크측의 요구에 크게 미달된 실정임. 이라크 정세의 불안, 실무조직의 미정비, 미국 주도에 대한 불만 등으로 원조 이행이 차질을 빚고 있음.

#### □ 외채상환도 큰 부담

- 이라크는 사담 후세인의 집권 기간 동안 세 차례의 대규모 국제전을 치르면서 막대한 외채를 떠안게 돼 향후 이 문제의 해결이 전후복구재원 조달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임.

- 이라크의 외채 규모는 정확한 실태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나, 세계 최대 채무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2002년 세계은행은 이라크의 외채가 밀린 이자 470억 달러를 포함해 총 1,28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였음.
- 그러나 2003년 1월 미국 전략문제연구센터(CSIS :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는 이라크의 외채 규모를 총 3,830억 달러로 추산하였음.
- 이것은 세계은행이 추산한 1,280억 달러의 대외채무에다 1990~91년 쿠웨이트 침공 및 걸프전에 따른 배상금 1,990억 달러, 그 동안 미이행된 각종 계약의 배상금 570억 달러 등을 포함한 것임.
- UN은 이라크의 전후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 1483호에 의해 2004년 말까지 모든 대외채무에 대한 원금 및 이자 지불을 동결키로 결의하였음. 또한 쿠웨이트전 배상금을 종전 석유수출대금의 25%에서 5%로 낮추어 줄 것을 결의하였음.
- 그러나 외채의 절대 규모가 과도해 국제사회가 획기적인 외채탕감 조치를 취해 주지 않는 한 이라크경제의 정상화는 요원해질 가능성도 있음. 현재의 외채 규모에 대한 부담을 질 경우 이라크는 향후 장기간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 국제사회는 현재 이라크에 대한 외채탕감문제를 논의하고 있으나 채권국들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음. 일반적으로는 1999년 밀로세비치 추방 이후 세르비아에 대한 외채탕감의 전례를 따라 66% 수준의 탕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음.

〈표 II-7〉 CSIS 추산 이라크 외채 규모

단위 : 억 달러

내 용	금 액
쿠웨이트전 배상금	1,990
쿠웨이트	690
사우디 등 인근 6개국 <sup>1)</sup>	360
유럽 및 미국	240
기타 정부	430
개인	270
대외 채무	1,280
GCC 국가	470
기타 국가	340
누적 이자	470
연기된 계약	570
러시아	520
기 타	50
총 외채	3,830

자료 : US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Paying for Iraq's Reconstruction*, Jan. 2004.

주 : 1)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터키,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 Ⅲ. 전후 중동 주요국 경제 동향과 전망

#### 1. 산유국경제, 20여년 만의 최대 호황

- 2002년 이후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보이면서 중동산유국들의 경제는 석유수입(Oil Revenue)의 증가로 1980년대 초반 이래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음.
- 최대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의 경우 2003년 석유수출액이 전년비 32%나 증가하여 840억 달러에 달했음. 이에 힘입어 경상수지 흑자가 두 배 이상 증가한 249억 달러를 기록했음.
- 2004년에도 유가가 지속적인 상승추세를 유지하면서 산유국경제의 호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음. 특히 재정사정이 여유로워진 각국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으로 건설과 관광, 소비 붐이 일고 있음.
-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등에서는 대형 빌딩과 쇼핑몰, 스포츠 시설 등 레저, 관광시설의 건축붐이 불고 있음. 두바이의 Burj Al-Arab 호텔 등 걸프지역의 상당 시설은 이미 세계 최고급의 명소로 알려지고 있음.

〈표 Ⅲ-1〉 주요 산유국 석유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

	2000	2001	2002	2003
사우디아라비아	70,654 (52.8)	59,607 (-15.6)	63,623 (6.7)	83,982 (32.0)
UAE	27,100 (21.0)	23,000 (-15.1)	22,800 (-0.9)	29,600 (29.8)
쿠웨이트	18,184 (59.0)	14,976 (-17.6)	14,058 (-6.1)	18,784 (33.6)
이 란	24,280 (34.8)	19,339 (-20.4)	22,945 (18.6)	..
리 비 아	11,638 (60.0)	8,537 (-26.6)	8,096 (-5.2)	9,374 (15.8)
알 제 리	21,061 (76.9)	18,531 (12.0)	18,109 (-2.3)	..

자료 : 각국 중앙은행, OPEC, IMF 등 자료 종합.

주 : ( )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 2.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경제는 2003년 유가 상승에 따른 석유수출 증가에 힘입어 6.4% 성장하고 120억 달러의 재정흑자와 249억 달러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음. 증시지수는 76% 상승했음.
- 2004년 정부 예산은 유가의 약세를 전제하여 32%의 세입 감소와 300억 리얄(80억 달러)의 재정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나, 고유가가 지속되어 실제로는 전년도보다 흑자폭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큼.

- 이같은 재정흑자는 최근 10여년간 사우디정부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공공채무의 감소에 큰 기여를 하고 있음. 사우디는 1991년 걸프전에 따른 전비부담의 후유증과 그 후 지속적인 재정적자로 정부채무가 누적되어 왔음.
- IMF는 2002년 말 기준 사우디의 정부 채무규모가 6,847억 리얄(1,825억 달러)로 GDP의 97%에 달한 것으로 추산했음. 사우디정부는 이 규모가 2003년에는 6,300억 리얄(1,680억 달러)로 GDP의 80%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표 III-2〉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sup>1)</sup>	2004 <sup>2)</sup>
GDP	억 달러	1,887	1,833	1,885	2,116	2,131
실질성장률	%	4.9	1.3	1.0	6.4	0.5
1인당 GDP	달러	8,538	8,039	8,021	8,744	..
인 구	만명	2,210	2,280	2,350	2,420	..
소비자물가상승률	%	-1.2	-1.1	0.3	0.5	0.2
수 출	억 달러	776	681	717	865	667
수 입	억 달러	277	286	296	304	312
경상수지	억 달러	143	94	117	249	5.2
외환보유액(금 제외)	억 달러	196	176	206	226	..
총 외 채	억 달러	361	362	381	391	409
환 율	SR/US\$	3.75	3.75	3.75	3.75	3.75

자료 : EIU, *Country Report : Saudi Arabia*, Feb. 2004.

주 : 1) EIU 추정치.

2) 2004년 수치는 EIU의 전망치이나 유가를 약세로 전제하여 모든 항목이 하향 예측되어 있음.

- 2004년 정부예산은 세입예산의 감소 예상에도 불구하고 세출 규모를 10% 늘려 정부의 확대재정정책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교육·훈련 등 인력개발과 최근 일련의 테러 사태에 대응한 치안력 강화에 최대의 재원을 배분하고 있음.
- 사우디 정부가 관심을 쏟고 있는 현안 중 하나는 국영기업의 민영화임. 지난해 사우디 텔레콤(STC)을 민영화한 데 이어 올해는 국영 상업은행(National Commercial Bank) 등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정치적으로는 와병 중인 파드 국왕을 대신해 국정을 수행하고 있는 압둘라 황태자의 왕위 계승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황태자는 정당제도 도입 등 정치, 경제개혁에 진보적 자세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왕족과 신학자 집단 등 보수세력의 저항이 강함.

### 3. 아랍에미리트연합

- UAE는 2003년에 5.2%의 실질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석유수출은 296억 달러로 전년비 29.8% 증가했으며, 경상수지 흑자도 124억 달러로 47.6% 증가하였음.
- UAE는 석유 고갈에 대비해 중동산유국 중 가장 적극적인 산업다양화 전략을 추진해오고 있는 나라임.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중심으로 중동의 중개무역 및 상업, 금융서비스



센터로 입지전략을 굳히고 관련 시설의 확장 및 제도 정비에 주력하고 있음.

- 7개 연방 구성국 중 최대 국가인 아부다비는 석유화학, 전력, 담수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민간자본과 외자유치를 통해 본격적인 개발을 추진할 계획임. 두바이는 국제금융센터 설립, 대규모 호텔, 쇼핑몰 건설 등 금융, 관광, 서비스 부문의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UAE의 총수출 가운데 30% 정도가 인근국가에 대한 채수출로 이루어지는 등, 경제의 석유의

〈표 III-3〉 아랍에미리트연합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sup>1)</sup>	2004 <sup>2)</sup>
GDP	억 달러	702	692	710	784	841
실질성장률	%	12.3	3.5	1.8	5.2	4.1
1인당 GDP	달러	21,938	19,771	18,684	19,600	··
인 구	만명	320	350	380	400	··
소비자물가상승률	%	1.3	2.7	2.9	3.2	3.0
수 출	억 달러	498	488	496	567	524
수 입	억 달러	315	336	352	372	398
경상수지	억 달러	138	99	84	124	52
외환보유액(금 제외)	억 달러	135	141	152	157	··
총 외 채	억 달러	186	185	197	207	220
환 율	Dh:US\$	3.67	3.67	3.67	3.67	3.67

자료 : EIU, *Contry Report : United Arab Emirates*, Feb. 2004.

주 : 1) EIU 추정치.

2) EIU 전망치.

존도가 낮아지고 역내 중개무역 및 상업기지로서의 위상이 확고해지고 있음.

- 이라크 종전과 더불어 항공, 해운, 금융, 관광 등 서비스센터로서 UAE의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고유가의 지속으로 2004년에도 5% 이상의 견실한 성장을 이룰 전망이다.

#### 4. 쿠웨이트

- 1990년 이라크에 점령당한 경험이 있는 쿠웨이트는 사담 후세인 정권이 붕괴되면서 최대의 안보불안 요인이 해소되었음. 2003년 종전 이후 국민동원령이 해제되면서 전후 복구 특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증시지수는 두 배 이상 치솟았음.
- 쿠웨이트정부는 그 동안 정세불안으로 미루어왔던 대형 개발사업들을 본격 추진할 계획임. 70억 달러가 투자될 북부 유전개발 프로젝트(Project Kuwait)는 준비단계를 거쳐 2005년 초 본격 착수될 것으로 예상됨.
- 전후 이라크의 항공물류시설 마비로 쿠웨이트, 요르단 등이 중간기지 역할을 하면서 이라크의 복구에 따른 특수효과도 누리고 있음. 이라크로부터의 배상금도 유입되고 있으며, 국제사회로부터 이라크 채무 탕감 압력을 받고 있으나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음.

〈표 III-4〉 쿠웨이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sup>1)</sup>	2004 <sup>2)</sup>
GDP	억 달러	370	342	353	419	432
실질성장률	%	3.9	-1.0	1.0	4.6	1.4
1인당 GDP	달러	16,818	14,870	14,708	16,760	··
인 구	백만	2.2	2.3	2.4	2.5	··
소비자물가상승률	%	1.9	1.6	1.3	1.2	1.6
수 출	억 달러	195	162	154	226	192
수 입	억 달러	65	70	81	96	103
경상수지	억 달러	147	83	41	87	48
외환보유액(금 제외)	억 달러	70	99	92	76	··
총 외 채	억 달러	93	105	112	122	124
환 율	KD:US\$	0.307	0.307	0.304	0.299	0.301

자료 : EIU, *Country Report : Kuwait*, Feb. 2004.

주 : 1) EIU 추정치.

2) EIU 전망치.

- 2003년 석유수출은 전년비 33.6% 증가한 188억 달러에 달했으며, GDP는 4.6% 실질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고유가와 경제여건의 호조로 2004년에도 5% 내외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됨.

## 5. 이란

- 이란은 국토면적과 인구, 자원 등을 고려할 때 중동에서 가장 개발잠재력이 큰 나라이나, 1979년 호메이니혁명 이후 성직자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장기간 경제가 위축되어 왔음.

- 이란경제의 장기간 침체 원인은 외국인투자의 전면금지, 미국과의 대립 등, 세계경제로부터의 고립을 자초한 보수세력의 이슬람원리주의 노선에 있음.
- 이들은 평등을 추구한 이슬람 사회주의노선을 내세우면서 무역 및 주요 산업을 국영화하고, 사회 전반을 이슬람 원리의 잣대로 통제하면서 팔레비의 근대화 이전으로 복귀시켰음.
- 이란 국민들은 1997년 온건한 개혁주의자인 하타미 대통령을 압도적 지지로 뽑아 장기간의 경제 침체와 사회문화 통제로부터의 변화를 기대했으나, 성직자 우위의 정치 구조로 인해 별 다른 성과를 보지 못했음.
- 2004년 2월 이란의회 선거에서는 하타미 대통령의 개혁 성과에 불만을 느낀 국민들이 광범위한 정치적 무관심을 보인 가운데, 보수세력이 의회를 장악했음.
- 이란경제의 향후 성과는 대외관계의 개선, 비효율적인 사회주의정책의 수정, 외자에 대한 개방 등의 실현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임. 그러나 성직자 위주의 정치구조하에서 보수세력이 의회까지 장악하게 되어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정치, 경제구조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란 경제는 2000년 이후 중동지역의 정세불안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던

〈표 III-5〉 이란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sup>1)</sup>	2004 <sup>2)</sup>
GDP	억 달러	719	855	1,148	1,279	1,527
실질성장률	%	5.3	5.8	7.6	6.2	4.0
1인당 GDP	달러	1,083	1,272	1,686	1,851	··
인 구	만명	6,640	6,720	6,810	6,910	··
소비자물가상승률	%	14.5	11.3	14.3	16.5	14.8
수 출	억 달러	283	239	282	351	268
수 입	억 달러	152	181	238	291	286
경상수지	억 달러	126	60	37	47	-30
외환보유액(금 제외)	억 달러	125	175	223	249	··
총 외 채	억 달러	80	72	93	97	112
환 율	IR/US\$	8,077	7,921	7,958	8,217	8,260

자료 : EIU, *Country Report : Iran*, Mar. 2004.

주 : 1) EIU 추정치.

2) EIU 전망치.

반면 유가 상승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림으로써 연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달성했음. 2003년에도 6.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됨.

## 6. 이집트

- 산유국이지만 석유수출 여력이 없는 이집트는 수입물가의 폭등과 정부 채무 증가 등으로 2000년대 들어 계속 성장률이 저하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03년 성장률은 정부 목표 4.6%에 훨씬 미달하는 1.8%에 그친 것으로 추정됨.

- 낮은 경제성장률과 반대로 높은 인구증가율에 의해 1인당 소득도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실업과 빈곤의 확산이 점차 심각한 문제로 대두하고 있음. 2003년 1인당 GDP는 1,000달러 이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 이집트 정부는 빈곤의 확산에 따른 정치와 사회불안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 Atef Obeid 총리는 2003년 의회 연설에서 빈곤 억제와 사회보장 확대를 정책목표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고 발표했다.

〈표 III-6〉 이집트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2000	2001	2002	2003 <sup>1)</sup>	2004 <sup>2)</sup>
GDP	억 달러	97.9	90.4	84.8	68.7	74.2
실질성장률	%	5.1	3.5	3.0	1.8	2.8
1인당 GDP	달러	1,444	1,308	1,203	958	..
인 구	만명	67.8	69.1	70.51	71.7	..
소비자물가상승률	%	2.7	2.3	2.7	4.3	5.0
실업률	%	-	-	9.0	10.6	11.4
수 출	억 달러	71	72	73	88	89
수 입	억 달러	176	158	147	147	158
경상수지	억 달러	-8	-2	-8	30	17
외환보유액(금 제외)	억 달러	131	129	132	134	..
총 외 채	억 달러	290	292	291	301	319
환 율	£:US\$	3.47	3.97	4.50	5.83	6.16

자료 : EIU, *Country Report : Egypt*, Feb. 2004.

주 : 1) EIU 추정치.

2) EIU 전망치.

- 정부채무의 증가 역시 심각한 경제현안으로 인식되고 있음.  
이집트정부의 국내채무는 2002년 GDP의 58%에서 2003년 9월 말 현재 62%로 늘어났음. 정부산하 기관들을 포함할 경우 이 비율은 89%로 늘어남.
- 만성적 무역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이집트는 1990년대 IMF와 세계은행으로부터 세 차례 구조조정자금을 받으면서 재정 건전화, 무역 및 외국인투자 자유화, 외환시장 자율화, 국영기업 민영화 등 광범위한 개혁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그러나 2000년대 초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경제사정이 악화되자 1990년대 시행했던 개혁조치들이 거의 유명무실해졌음. 광범위한 정부 보조금,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과 암시장 부활 등 개혁 이전의 상황들이 되살아나고 있음.

## IV. 한국의 대중동 진출 현황

### 1. 대중동 경제진출 현황과 특징

#### □ 경협상대로서 위상 퇴조

- 중동지역은 1970~80년대 유가인상을 바탕으로 우리의 해외 건설 및 수출시장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유가하락 및 역내 정정불안에 따른 산유국 경제 위축, 상대적으로 우리 경제의 확대에 따라 경협대상으로서 위상이 현저히 퇴조했음.
- 우리의 수출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83년 14.5%를 정점으로 하락, 90년대 이후로는 매년 4~5% 안팎을 차지하고 있음.
- 해외건설 수주 역시 1981년 127억 달러로 총수주액의 93%를 차지한 이후 하락 추세 지속. 최근 수주 비중은 다시 늘어났으나 금액면에서 과거에 비해 절대적으로 줄었음.
- 투자, 인력진출 등 여타 경제협력도 전반적으로 미미한 실정임. 2004년 6월 말 현재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대중동 순직접투자액은 92건 6억 8,600만 달러에 불과, 건수 및 금액면에서 각각 전체 투자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음.



〈표 IV-1〉 한국의 교역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

단위 : %

	1971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3
수출	1.0	6.7	14.5	9.5	4.0	3.9	4.4	4.4
수입	6.4	17.8	26.0	12.7	8.9	8.8	16.1	15.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기후 및 생활여건의 불리, 이슬람교에 기반한 문화적 이질감 등으로 유학, 이민, 취업 등 인력진출과 문화교류도 미미한 상황

#### □ 에너지 도입원으로선 절대적 비중

- 그러나 우리의 주에너지원인 석유도입선으로서 중동은 여전히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2003년 현재 중동산 원유수입액은 184억 달러로 전체 원유수입액의 79%에 달함. 천연가스(LNG) 도입액은 28억 달러로 전체의 47% 차지
- 이로 인해 대중동 무역은 만성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으며 2003년 적자규모만 183억 달러에 달했음(전체 무역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

〈표 IV-2〉 중동산 원유도입 현황

	2001		2002		2003		2004. 1~6		
	도입량 (백만kg)	금액 (백만달러)	도입량 (백만kg)	금액 (백만달러)	도입량 (백만kg)	금액 (백만달러)	도입량 (백만kg)	금액 (만달러)	구성비 (%)
사우디	36,357	6,690	34,872	6,260	35,179	7,413	17,235	4,213	32.2
UAE	17,873	3,389	15,591	2,875	19,294	4,189	8,977	2,261	16.8
쿠웨이트	8,782	1,514	8,893	1,515	11,161	2,201	4,944	1,107	9.2
이 란	11,249	1,985	7,034	1,204	8,597	1,715	4,472	1,032	8.4
카타르	5,417	1,074	4,700	872	6,451	1,397	3,259	808	6.1
오 만	7,257	1,312	5,712	998	5,309	1,087	2,328	547	4.4
수 단	576	92	429	71	273	68	394	110	0.7
이집트	-	-	145	19	-	-	381	90	0.7
예 멘	1,914	405	2,204	428	976	237	141	40	0.3
이라크	150	28	235	39	267	57	-	-	-
중립지대	640	103	159	19	-	-	-	-	-
중동전체	90,215	16,593	79,973	14,299	87,507	18,363	42,264	10,241	78.9
세계전체	116,156	21,368	106,877	19,200	108,866	23,082	53,539	13,100	100.0

자료 : 한국무역협회.

## 2. 부문별 진출 현황

### (1) 상품수출

#### □ 대GCC 수출이 48% 차지

- 2003년 말 기준 우리의 대중동 수출은 86억 달러로 총수출의 4.4%를 차지했으며, 2004년 1~6월 현재는 약 52억 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동기 대비 26.5% 증가하였음.

- 국별로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등 걸프협력위원회(GCC) 6개국에 대한 수출이 총수출의 48%를 차지하고 있음.
- 이밖에 이란, 요르단, 이집트 등이 주요 수출상대국이며 특히 이란은 2003년에 사우디를 꺾히고 중동지역의 2대 수출 시장으로 떠오른 후 2004년에도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 최대 수출상대국인 UAE는 1990년대 중반 사우디를 꺾히고 1위로 떠오른 후 계속 같은 추세를 유지하고 있음. 그러나 UAE 전체수입의 40% 정도는 인근 국가들에 대한 재수출 용이고 그 중 상당부분이 이란으로 들어가는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란이 우리의 최대 수출시장이라 할 수 있음.
- 전후복구와 관련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이라크 수출은 2004년 1~6월 중 무려 1,856%가 증가했으나 이는 2003년 상반기 중 전쟁으로 수출이 중단됐던 점에 기인하며, 절대액은 7,700만 달러로 아직 미미한 수준임.
- 2004년 들어 대요르단 수출이 129% 증가했는데 이는 이라크 시장으로 들어가는 상품의 우회수출이 늘어난 데 힘입은 것임.

〈표 IV-3〉 대중동 주요국별 수출추이

단위 : 백만 달러, %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GCC	4,045		4,023	-0.5	4,424	10.0	2,456	13.1
UAE	2,169		2,269	4.6	2,208	-2.7	1,324	30.9
사우디	1,274		1,259	-1.2	1,409	11.9	777	19.4
쿠웨이트	178		184	3.0	294	59.8	152	-12.7
카타르	221		148	-33	357	140.6	103	-60.8
오만	155		102	-34	104	1.8	61	29.8
바레인	47		61	31.8	53	-14.2	39	50.3
이란	875		1,227	40.3	1,778	44.9	968	19.9
요르단	185		195	5.7	321	64.4	285	128.9
이집트	431		321	-25.6	425	32.5	277	28.1
이라크	73		86	18.1	36	-58.8	77	1,856.1
중동전체	7,138		7,499	5.1	8,592	14.6	5,164	26.5
세계전체	150,439		162,471	8.0	193,817	19.3	123,298	38.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 자동차, 가전제품 등이 주종

- 품목별로는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제품, 직물 등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휴대폰, 고급 가전제품, 중고차, 담배 등의 수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
- 자동차는 중고차 수출이 호조를 띠고 있음. 2003년 중동지역에 대한 중고차 수출은 35만대를 넘어섰으며, 2004년에는 40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

〈표 IV-4〉 품목별 중등수출 현황

단위 : 천 달러, %

	2001	2002		2003		2004. 1~6	
	금액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수송기계	1,611	1,762	9.3	2,188	24.2	1,361	26.5
산업용전자제품	784	1,038	32.5	1,159	11.7	686	20.1
가정용전자제품	776	929	19.7	980	5.5	647	22.0
철강제품	380	444	16.7	724	63.1	216	39.6
직 물	843	786	-6.8	683	-13.1	331	9.4
석유화학제품	279	287	2.7	456	59.2	285	46.8
산업기계	350	302	-13.8	303	0.4	231	85.2
기초산업기계	193	161	-16.3	218	34.8	203	92.5
고무제품	233	217	-7.0	232	7.1	124	6.4

자료 : 한국무역협회.

- 휴대폰 수출도 2004년 1~6월 중 52% 증가, 특히 호조를 보이고 있는 품목임. 중동지역의 경우 청년층 인구의 비율이 높아 휴대폰 선호가 높고, 지리적 특성으로 유선망보다 무선 통신망의 설치가 훨씬 경제적이어서 휴대폰 시장은 계속 유망함.
- 이 지역의 무더운 날씨와 관련하여 에어컨,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2) 건설수주

### □ 대중동 건설수주 다시 증가

- 80년대 중반 이후 대중동 건설수주는 지속적으로 감소해왔

으나 최근 다시 늘어나 2001년과 2002년에는 각각 전년비 41%, 38% 증가했음. 2003년에는 전쟁으로 감소했으나 2004년 1~8월 중에는 다시 17% 증가하여 21억 3,400만 달러를 기록했음.

- 우리의 해외건설 수주 총액에서 중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6.5%로 최저 수준을 기록한 이후 다시 상승하여 2001년 51.9%, 2002년 50.8%, 2003년 61.6%를 기록하였으며, 2004년 1~8월 중에는 54.1%를 기록하였음.

〈표 IV-5〉 대중동 주요국별 건설수주 추이

단위 : 건, 백만 달러

	2001		2002		2003		2004 <sup>1)</sup>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사우디	4	344	10	93	9	120	9	505
쿠웨이트	4	321	4	185	5	414	2	404
카타르	0	12	1	129	4	51	1	235
이라크	0	0	0	0	2	6	4	222
예멘	0	0	0	0	1	2	1	211
UAE	3	818	1	49	3	86	4	198
오만	0	10	1	32	0	0	1	179
이란	1	495	2	1,874	5	836	1	53
리비아	3	232	6	748	2	579	0	19
중동전체	15	2,260	25	3,110	33	2,258	25	2,134
세계전체	77	4,355	140	6,126	153	3,668	110	3,944

자료 : 해외건설협회(<http://icak.or.kr>),

주 : 1) 2004년 8월 30일 현재.

- 수주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19.5%, 2002년 17.9%, 2003년 21.6%, 2004년 1~8월 22.7%로 상대적으로 낮음. 이는 중동에서 수주하는 공종이 과거의 토목, 건축 등 저가 공사에서 플랜트 위주로 고가화하고 있음을 반영함.

#### □ 이라크 시장, 급속 부상 전망

- 국가별로는 사우디, 이란, 리비아, 쿠웨이트, UAE 등이 주 시장을 형성해 왔으나, 향후로는 전후복구와 관련해 이라크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 2004년 들어 이라크에서는 정정불안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이 수자원복구공사와 북부지역 송변전공사를 수주하는 등 모두 4건, 2억 2,200만 달러를 수주하였음.

#### (3) 직접투자

- 2004년 6월 말 현재 이집트 등 북아프리카를 포함한 우리의 대중동 직접투자는 92건 6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음(청산 등을 제외한 순투자 기준).
- 국별로는 유전개발 투자와 관련하여 예멘에 1억 4,500만 달러가 투자되었으며, 이밖에 이집트, 알제리, 수단에 각각 1억 달러 이상이 투자되었음. 건수면에서는 사우디(27), UAE(12), 이집트(10), 모로코(6), 수단(6) 등에 상대적으로 많은 투자업체가 나가 있음.

- 과거의 대중동투자는 건설업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제조업, 무역업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음. 특히 이집트의 LG전자, 이란의 기아자동차 등은 현지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음.

〈표 IV-6〉 우리나라의 대중동 국별 투자실적  
(2004년 6월 말 현재)

단위 : 건, 백만 달러

	총신고 건수	총신고 금액	순신고 건수	순신고 금액	총투자 건수	총투자 금액	순투자 건수	순투자 금액
사우디아라비아	69	102	31	52	54	58	27	34
아랍에미리트	22	21	14	16	17	12	12	9
요르단	6	17	5	16	5	7	4	7
이란	7	74	7	15	5	25	5	13
이스라엘	4	18	4	18	4	18	4	18
카타르	5	1	5	1	4	1	4	1
쿠웨이트	6	3	2	1	4	2	1	0
바레인	5	4	2	3	3	1	1	0
오만	3	91	3	91	3	70	3	70
시리아	2	3	2	3	2	3	2	3
레바논	1	0	1	0	1	-	1	-
예멘	1	675	1	143	1	622	1	145
이라크	1	0	1	0	0	0	0	0
이집트	15	178	12	153	13	121	10	107
모로코	25	118	7	86	17	53	6	22
모리타니아	1	5	0	0	1	5	0	0
알제리	3	335	1	176	3	216	2	104
튀니지	5	0	3	0	3	0	2	0
리비아	2	83	1	83	2	48	1	48
수단	7	156	6	104	7	148	6	104
중동합계	190	1,883	108	961	149	1,406	92	686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주 : 수출입은행 통계는 북아6개국을 아프리카로 분류하고 있으나 여기서는 중동에 포함시켰음.



## V. 대중동 진출 확대전략

### 1. 대중동 경제진출의 기본전략

#### □ 중동에 대한 기본인식 재정립

- 1980년대 이후 중동건설붐이 식으면서 중동에 대한 우리의 진출열기도 급속히 사라졌음. 이는 유가약세와 정세불안으로 인한 중동경제 위축과 함께 중동을 일회성의 특수(特需) 시장으로 인식해 온 우리측 요인도 작용한 것임. 우리 업체들은 문화·언어·기후조건 등에 대한 거리감으로 중동 진출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음.
- 중동은 20여개 국가, 3억 인구가 몰려 있고, 세계 석유매장량의 70%를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정치·경제적으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지역임. 또한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교량의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서 전략적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음.
- 이 지역은 세계 3대 종교의 하나인 이슬람교의 본산이고, 이집트, 이란(페르시아), 터키 등 대제국을 건설했던 자긍심 강한 민족들이 사는 지역임.

- 우리는 중동에 대한 문화적 이해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고 중동을 일회성의 특수시장이 아닌 상시적 중요성을 지닌 시장으로 재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인적교류 확대 필요

- 중동에 대한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우선 이슬람교와 아랍 문화, 아랍어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심리적 거리감을 줄이는 것이 선결과제임. 이를 위해 학술행사 지원, 유학생 파견 및 초청, 기업체의 전문인력 양성 등 정책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중동지역에서의 상거래는 인적 네트워크가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감안, 현지의 유력인사 초빙, 우리측 고위인사들의 현지 방문, 유관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등에 보다 노력할 필요가 있음.

#### □ 현지투자를 통한 장기적 진출거점 확보

- 현재 중동에 대한 우리의 직접투자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부진한 실정인바, 이는 중동시장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측의 인식과도 관련이 있음.
- 중동국가들은 최근 구조조정과 자유화를 통해 외국인투자에 대한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으며, 외자유치에도 적극 나서고 있음. 세계경제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서 장기적인

진출 기반 확대를 위해서는 현지 직접투자를 통한 거점 확보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음.

- 중동에 대한 투자는 현지시장을 겨냥한 것일 뿐만 아니라 최근의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EU·미국 등지로의 진출 확대에도 유리하며, 아프리카, 동유럽 등에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로도 활용될 수 있음.

#### □ 이라크 복구 적극 참여

- 이라크복구는 향후 장기간에 걸쳐 연간 150억~200억 달러 규모의 신규 수요를 창출하여 중동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 줄 요소임.
- 이라크의 새정부 구성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고 교통, 치안, 행정조직 등이 정리되지 않은 만큼 우리는 이라크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본격적인 전후 복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임.
- 당분간은 쿠웨이트, 요르단, UAE 등 주변국을 전진기지로 활용하면서 이라크 현지여건과 새 정부 구성 과정을 주시하는 것이 필요
- 국제사회의 이라크 지원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지를 강화하고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 마드리드 회의 이후 구성된 원조국위원회(Donors' Committee)에서 보

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는 이라크에 미국, 영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병하고 있는바, 이를 잘 활용해 향후 구성될 새 정부의 주도적 인사들과 우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
- 파병 부대와 교민에 대한 현지 저항세력의 테러에 특히 유의하고 현지인들과 불필요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 필요

#### □ 인도적 지원에 관심 표명

- 과거 이란·이라크전 종전 이후나 팔레스타인 평화협정 체결 이후 국내의 반응이 지나치게 상업적 목적의 중동특수에 대한 관심으로만 나타나 해당국 언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음.
- 이번 이라크의 경우 참혹한 전쟁을 겪은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순수한 인도적 지원에 대한 관심을 적극 표명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 보건 사업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 필요

#### □ 산유국경제의 호황에 적극 부응

- 최근의 고유가로 사우디, 쿠웨이트, 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과 이란, 리비아, 알제리 등 주요 산유국경제가 20여년

만에 최고의 호황을 맞고 있는바, 우리는 이에 부응해서 보다 적극적인 진출전략을 구사해야 함.

- 이라크 정정 불안과 2004년 6월 김선일씨 피랍 살해 사건 등으로 중동을 위험지역으로 간주하는 시각이 확산되었으나, 이라크를 제외한 여타 중동국가의 치안 상황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중동은 20여개 국가로 구성된 광대한 지역이며 각 국가별 정치, 경제 상황이 모두 다름. 이라크 사태를 중동의 다른 국가들과 동일시해서는 안됨.
- 2004년 중 우리의 대중동 수출과 건설수주는 크게 늘어난 편이나, 전체 수출증가율에도 못미치고 있음. 중동경제의 호황을 고려할 때 보다 적극적인 진출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여지가 많음.

## 2. 분야별 진출전략

### (1) 상품수출

- 마케팅의 기본 전략상 목표 시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적절한 판매전략을 구사해야 함. 중동시장에서 공통적으로 파악되는 특성은 ① 이슬람교에 기초한 독특한 상관행과 시장 수요 변화, ② 20대 이하의 인구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인구구조의 특성 등을 들 수 있음.

- 라마단, 하지, 이드 알 피트르 등 각국의 세시풍속과 명절이 이슬람교의 교의에 따라 진행되며, 이슬람력(음력)을 따르므로 양력과는 다름. 이 시기에 관련 상품의 수요가 폭증. 또한 금요일이 주말이며, 혼사 등 각종 행사는 주로 저녁 시간에 치러짐.
- 중동지역은 이슬람교의 관습상 산아제한을 안해 인구증가율이 매우 높고, 특히 70~80년대의 오일붐 시절에 태어난 세대가 많아 30대 이하의 인구비율이 대부분 국가에서 60% 내외를 차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중동 각국에서 완구류, 유아의류 등 아동용품과 문구류, 스포츠용품, 게임기 등 청소년용품에 대한 수요가 큼. 또한 결혼 적령기 인구비중이 높아 가전제품 등 혼수용품 수요도 큼.
- 이밖에 각국의 경제정책에 부합하는 상품수요에 맞추어 마케팅 추진 필요. 주요 산유국들은 산업구조 다변화를 위한 석유 대체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 시장 조사와 대처가 필요함.
- 이란, 알제리, 리비아 등은 천연가스 개발에 따른 대규모 설비재료 및 기자재 수요 발생. GCC 각국은 정보화 추진과 소득 향상에 따라 각종 IT 제품 및 소비재에 대한 수요가 큼.

- 이라크는 전후복구와 관련해 각종 건설기자재 및 생필품, 운송수단 등에 대한 수요가 크게 발생할 전망이다. 필요 물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변국가를 활용한 유통기지 구축 등의 전략이 필요할 것임.
- 최근 우리의 수출실적과 현지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국가별 유망수출상품을 뽑아보면 <표 V-1>과 같음.

<표 V-1> 대중동 수출유망품목

품목	주요 시장	수출금액 (천 달러)	내역
위성방송 수신기	UAE 이집트 시리아 알제리 이라크	203,273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AE에 대한 수출이 대중동 수출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4년 상반기 동안 UAE에 대한 수출이 9.6% 감소하면서 중동지역 전체에 대한 수출도 1.6% 줄어들었음.</li> <li>- UAE 시장의 위성수신기는 판매물량면에서 90%가 현지 업체의 OEM 제품으로 한국, 중국 등에서 생산되는데 Atlanta, Eurostar, Fort, Mediacom 등이 내수 및 재수출 시장에서 인기 있는 제품.</li> <li>- 내수는 U-CAS 제품이 많이 늘고 있으며, 시청과 녹화가 동시에 가능한 2Tuner 제품에 대한 선호도 늘어가고 있음.</li> <li>- 이라크 시장은 UAE, 요르단, 시리아, 이란 등에서 제품이 공급되며, 이들 물량 중 UAE가 50% 정도를 담당하는 것으로 예상.</li> </ul>

(계속)

품목	주요 시장	수출금액 (천 달러)	내역
휴대용 전화기	UAE 알제리 모로코	322,098 (5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지역에서 휴대용 전화기에 대한 수출은 매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64%가량을 UAE에 수출하고 있음.</li> <li>- 중동지역에서 휴대폰이 폭발적인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타지역에 비해 일반 가정의 평균 구성원이 많다는 점.</li> <li>2) 국토의 대부분이 사막이고 인구에 비해 거주 지역이 넓게 분포되어 있어 유선망을 설치하기보다는 무선통신망을 설치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사용에도 편리함.</li> <li>3) 사용의 편의성.</li> </ol> </li> <li>- 중동지역에 노키아, 소니-에릭슨, 모토로라, 지멘스 등 세계 유수의 제품과 함께 삼성, LG, 세원텔레콤, 펜텍 등 한국산 4개 브랜드의 핸드폰이 진출해 있음.</li> <li>- 한국산 GSM 휴대폰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현지 소비자들에 맞는 새로운 기능(LG 핸드폰의 메카 기도방향을 알려주는 기능, 음성 다이얼 기능 등)까지 출시하여 선두 '노키아'와의 시장점유율 격차를 점차 줄여가고 있음.</li> <li>- 디지털 카메라폰도 삼성, LG 양사에서 적극적으로 판촉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음.</li> <li>- 삼성, LG 등은 현지 문화, 체육행사를 적극 후원하는 등 현지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시내 중심지마다 광고판을 설치하는 등 홍보에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있음.</li> </ul>

(계속)



품목	주요 시장	수출금액 (천 달러)	내역
에어컨	사우디 UAE 이란	218,411 (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지역의 무더운 기후로 인하여 에어컨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li> <li>- 전후 이라크의 에어컨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UAE, 요르단, 쿠웨이트 등을 통한 재수출 수요도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li> <li>- 중동지역의 폭염과 모래바람에 대한 내구성을 크게 강화한 중동 특화형 제품에 중점을 둔. LG사의 가정용 에어컨은 연중, 하루종일 사용해야 하는 현지 기후 조건 및 생활 조건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음이온 발생장치와 항균 및 탈취장치를 장착한 신제품을 출시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고 있음.</li> </ul>
철강제품	이란 사우디 UAE 쿠웨이트	361,186 (39.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동지역 중 특히 걸프 지역은 석유의존형 산업 비중이 높아 오일섹터에 소요되는 기자재 수요가 방대한 편이어서, hot rolled steel과 deformed steel bar와 같은 철강제품의 수출이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음.</li> <li>- 한국산 철강제품은 대만, 터키 등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고 품질이 좋아 현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li> <li>- 최근 고유가로 인한 중동지역 건설경기의 호황으로 인하여 철강제품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li> <li>- 특히 이란은 2004년 상반기 중동전체 철강제품 수출의 약 37%를 차지하면서 제1의 수출시장으로 부상함.</li> </ul>

(계속)

품목	주요 시장	수출금액 (천 달러)	내역
기타건설 중장비	사우디 UAE 이 란	62,212 (15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유가에 따른 걸프지역의 건설경기 호황, 그리고 이라크 재건 사업 등이 결합하여 중동은 건설장비 수출의 유망지역이며, 관련 업체들은 이 지역에서 향후 5년 동안 매년 5~10%의 성장을 이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li> <li>- 미국의 Caterpillar가 이 지역에서 20~30%를 점유하고 있으며, 일본의 Komatsu는 약 20~25%를 점유함으로써 양대 회사가 시장에서 우세한 상황이며, 현대를 비롯한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강하게 도전하고 있는 상황임.</li> <li>- 이 지역에서 오래된 대형 회사들은 Carterpillar에 대한 브랜드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들은 새로운 고객과 작은 기업, 그리고 자영 건설장비 기사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li> </ul>
자동차 부품	이 란 UAE 이집트	265,665 (23.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산 제품은 한국차 및 일본차 호환부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는데 브레이크, 클러치 등 동력 전달부와 필터류에서 강세를 나타내고 있음. 특히 외산 자동차와 호환성이 좋은 필터류의 경우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여 인기를 얻고 있음.</li> <li>- 이라크를 비롯한 주변 국가에서의 한국산 상용차의 인기가 늘고 전후 중고차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앞으로도 한국산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할 것으로 보임.</li> </ul>

주 : 수출금액은 2004년 1~6월 현재,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 (2) 건설수주

- 기본적으로 과거 우리의 주요 수주 종목이었던 토목, 건축 등 저임금을 활용한 분야는 우리의 인건비 상승과 제3국 업체들의 진출로 이미 비교우위를 잃었음. 우리는 플랜트, 엔지니어링, 설계, 감리 등 선진국들과 경쟁하는 분야로 기술을 축적해 나가야 함.
- 최근 우리의 수주 유망분야는 산유국들의 담수화 공장, 천연가스 개발 관련 시설 등임. 이밖에도 정보통신망 확장 공사, 발전 및 송변전시설 신축·확장 등도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분야임.
- 쿠웨이트 정부가 추진 중인 70억 달러 규모의 북부유전 개발 공사 등 최근 산유국들의 재정 사정 호조로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속속 추진되고 있는바, 이에 적극 대응 필요
- 이라크 복구와 관련해서 단기적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전력망 등 인프라와 건축분야의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바, 자국민들을 활용해서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음. 활용 가능한 현지업체와 인력에 대한 정보 구축 필요
- 자금이 많이 수요되는 플랜트 분야는 대부분 공급자 신용을 요구하므로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공사 등의 적절한 정책금융 지원 필요

### (3) 직접투자

- 대중동 직접투자는 중국, 동남아 등에 비해 인건비, 거리, 문화, 현지시장 전망 등 여러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교우위가 없는 것이 현실임.
- 그러나 산유국들의 자국화정책에 부합하면서 현지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이며, EU에 대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점도 있음.
- 걸프 산유국은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재 위주의 중소 제조업 분야, 이집트, 모로코, 튀니지 등은 유럽 시장 우회수출을 겨냥한 섬유, 의류산업 분야 등이 유망 투자 분야임.
- 이밖에 팔레스타인문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등이 현지시장과 유럽, 미국을 겨냥한 유망 투자기지로 등장할 수 있음.

## <참 고 문 헌>

### ◆ 단행본 및 논문

- 박복영, 배희연(2003), 「이라크의 전후복구 동향과 향후 전망」, 지역리포트 03-04,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배상욱(2004), “이라크, UN 안보리 결의안 통과로 주권이양 작업 본격화”, 「수은 해외경제 (월간)」,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04년 7월호.
- 외교통상부 아중동국(2003), 「이라크 재건복구 관련 참고자료」, 2003. 11. 13.
- 외교통상부(2004), 「중동진출가이드 : 미래지향적 협력기반 구축」.
- 이규환(2004),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주권이양 일정”, 「수은 해외경제 (월간)」, 서울 : 한국수출입은행, 2004년 5월호.
- 주동주(2004), 「이라크 경제재건과 중동 산유국 경제동향」, E-KIET 산업경제정보 205호, 서울 : 산업연구원.
- 주동주(2003), 「대중동 경제진출 및 자원확보 강화방안」, 외교통상부 아중동국 제출 자료 (미발간).
- KOTRA(2003), 「이라크전후 중동시장의 변화와 수출 확대방안」.

- 
- Congressional Budget Office of USA(2004), *Paying for Iraq's Reconstruction*, Jan. 2004.
  - Farouk Al-Kasim(2004), "View On An Upstream Petroleum Policy for Iraq", *Middle East Economic Survey*, April 19, 2004(<http://www.mees.com>).
  - Gal Luft(2004), *Iraq's Oil Sector One Year After Liberation*, Saban Center Middle East Memo #4, Was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http://www.brookings.edu>).
  - Institute for the Analysis of Global Security(2004), *Attacks on Iraqi Pipelines, Oil Installations, and Oil Personnel*, <http://www.iags.org/iraqpipelinewatch.htm>.
  - Muhammad-Ali Zainy(2004), "The Iraqi Economy : Present State and Future Challenges", *Middle East Economic Survey*, June 21, 2004(<http://www.mees.com>).
  - United Nations and The World Bank(2003), *Joint Iraq Needs Assessment*, October 2003.

◆ 정기간행물 및 인터넷 자료

- KOTRA, 이라크 전후복구사업 수주지원센터의 각종 자료, <http://www.kotra.or.kr/iraq>

- Arab News(Daily), <http://arabnews.com>
- Gulf News(Daily), <http://www.gulf-news.com>
- Middle East Economic Survey(Weekly), <http://www.mees.com>
- Middle East Economic Digest(Weekly), <http://www.meed.com>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Report*(Quarterly)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Country Profile*(Annual)

Issue Paper 2004-170

**이라크 전후복구와 우리의 대중동 진출 확대 방안**

---

發行處：産業研究院(서울特別市 東大門區 淸涼里洞 206-9)

---

發行人：오 상 북

---

登 錄：1983年 7月 7日 第6-0001號 / 電話：3299-3114 (代)

---

印 刷：2004年 9月 13日 / 發 行：2004年 9月 15日

---

印刷處：태광인쇄

---

ISBN 89-90789-61-3 93320

---

購讀問議：편집팀(3299-3151)  
內容의 無斷轉載 및 譯載를 禁함.  
普及價 4,000원